



2024학년도 학생 소변검사 실시 안내

학부모님 안녕 하십니까?

2. 3. 5. 6학년을 대상으로 소변검사를 실시합니다. 소변검사는 신장의 이상과 당뇨를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치료를 통해 만성질환으로 이행되는 것을 최대한 막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통증 없이 쉽게 검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. 한번 발생하면 평생을 고생하게 되는 신장병은 증상이 나타나면 치료가 어려우므로 조기발견, 조기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. 따라서 이 번 소변검사에 학부모님 자녀가 꼭 검사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.

1. 검사 일시: 2024. 4. 4.(목) 09:00~
2. 검사 대상: 2. 3. 5. 6학년
3. 검사 비용: 무료 (검사비는 학교회계에서 지급)
4. 검사 기관: 한국학교보건협회 전북지부
5. 검사 방법: 병리검사요원이 출장 방문하여 스틱 검사
6. 소변검사 시 검사항목: 요당, 요단백, 요잠혈, PH
7. 검사 시 주의사항

가. 검사 전날 지나치게 많은 야채나 과일, 비타민 C를 섭취하지 않습니다.

나. 심하게 운동하지 않습니다.(검사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)

다. 중간소변을 검사 막대기(스틱)에 충분히 묻힌 후 검사요원에게 결과를 보입니다.

라. 손으로 검사막대기(스틱)를 만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.

마. 소변 채취 시 반드시 본인의 소변을 채취합니다.

바. 검사 할 때는 질서를 지키도록 하며 옆 반 수업이 방해되지 않도록 조용히 이동합니다.

종 목	정상	검사 결과에 대한 해석
요당	음성(-)	소변검사에서 당이 나오면 당뇨병 을 생각 할 수 있습니다. 신장은 혈액 속의 당을 소변으로 내보내지 않도록 작용하지만 혈당이 한도를 넘게 되면 소변으로 나옵니다. 그러나 소변에서 당이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다 당뇨병은 아닙니다.
요단백	음성(-)	소변 속의 단백질의 유무와 그 양을 조사합니다. 양성일 때는 신장이나 방광, 요도의 질환 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장시간 서서 일하거나 운동 후에는 정상에서도 양성이 나올 수 있습니다.
요잠혈	음성(-)	소변 속에 피(적혈구)가 섞여 있는지를 검사하는 것입니다. 피가 많이 섞여 있으면 소변은 붉은 포도주색이 되며 이는 출혈성방광염이나 요로 결석 등의 경우에 볼 수 있습니다. 심한 운동이나 스트레스 후에는 정상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.
PH	5.5-7.5	소변의 산성, 알칼리성 정도를 보는 것으로 요로 감염 으로 소변 속에 세균이 많으면 이상치를 나타냅니다.

▶ 검사결과 이상이 있는 학생에게만 개별 통보합니다. 검사결과 이상자는 병원 진료를 받도록 합니다.

2024. 3. 25.

전 주 중 인 초 등 학 교 장